제23-37호 | 2023. 9. 18.

IMO 소식 & 국제해사동향

해양수산부
KMC 한국해사협력센터

01

IMO 소식

IMO, “Open House Festival” 개최

〈IMO 본사 Open Hose Festival 개최, 출처: IMO〉

- IMO는 9월 6일부터 17일까지 평소 출입이 제한되어있던 IMO 본사 건물 내부를 대중에게 개방하는 Open House Festival을 개최함
- Albert Embankment에 위치한 IMO 본사 건물은 1970년대 영국 정부가 국제해사기구를 위해 특별히 건축하였으며 1983년 엘리자베스 여왕 2세가 공식적으로 개관하였고, 이후 대대적인 보수공사 끝에 2008년 Gloucester 공작이 재개관하였음

- 건물 정문 입장 시 IMO 임기택 사무총장의 인사 비디오가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으며, 1층에서는 IMO의 구조와 업무를 설명하는 동영상을 감상할 수 있음

- 투어는 대략 30분에서 45분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투어에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함
  - ▶ 크루즈선, 유조선, 여객선, 컨테이너선 등 많은 종류의 선박 모형을 관찰할 수 있음
  - ▶ 해사 분야에서의 여성의 과거, 현재, 미래의 이야기를 그리는 Rewriting Women into Maritime (RWM) 전시를 감상 가능함
  - ▶ 어린이를 위한 IMO 로고 퍼즐놀이 또한 1층의 어린이 구역에서 즐길 수 있음
  - ▶ 이 외에도, IMO에 기부된 많은 예술 작품 및 조각 등을 감상할 수 있음

- 2019년에 개최된 행사에는 대략 1,000명 가량의 방문객이 참여한 바 있음

02

국제해사동향

G20, 인도·중동·유럽을 잇는 육·해상 복합 교역로 구축 MoU 체결

(출처 : CBC , '23.9.11.)

○ 2023년 9월 9~10일 기간 동안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하는 G20 정상회의에서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UAE,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및 EU가 인도부터 중동을 거쳐 유럽을 잇는 육·해상 복합 교역로 구축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함

▸ MoU 정식명칭은 'MoU of the India-Middle East-Europe Economic Corridor (IMEC)'이며, 경로는 아래 그림과 같음. 이를 통해 기존 17일의 운송 시간이 10일까지 단축될 것으로 전망함

○ 이는 단순히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교역로를 구축하는 의미를 넘어 중동을 포함한 각 국가가 보유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친환경적인 육·해상 교역로를 개발한다는 데 의의가 있음

▸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UAE, 쿠웨이트, 카타르 등 주요 산유국들은 탈석유 필요성을 인식하고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음

○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지리적 위치에 있는 인도는 이번 IMEC MoU 체결을 통해 무역 산업의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많은 이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일부 전문가는 교역로에서 중국이 제외되었다는 점에는 정치적 함의가 있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MOL-Shell, 해양 부문 탈탄소화를 위한 MoU 체결

(출처 : Hellenic Shipping News, '23.9.9.)

- 일본 최대 해운사인 MOL(Mitsui O.S.K. Lines)과 해양 연료, 기술 등을 공급하는 글로벌 기업인 Shell Marine Product가 9월 8일 대체 해양 솔루션 발전 및 탄소 배출량 책임 관리에 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발표함
- MOL은 자사 경영 계획 "BLUE ACTION 2035*"의 핵심 중 하나로 환경 전략을 선택했으며, 일본 해운 업계 최초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넷제로 달성 목표를 설정하였음. MOL은 이번 Shell과의 MOU가 회사의 탈탄소화 의욕(ambitions)을 진전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

  * 환경 전략 외에도 포트폴리오 및 지역 전략이 있으며, 이 외에도 다섯 가지 최우선 항목을 설정하여 지속가능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계획이 담겨 있음

- Shell Marine은 "이번 MoU를 통해 양사는 다양한 환경규제로 인한 영향을 이해하고 해운산업의 성공적인 탈탄소화 경로를 탐색하기 위해 공동 연구에 집중할 계획임"을 전함

〈MOL과 Shell Marine의 MOU 세레모니, 출처: MOL〉

- 아울러, 양사는 이번 MOU를 통해 아래와 같은 과제를 수행할 것임을 밝힘
  - ▸ 합성 연료 실험 진행과 업계와 이해관계자가 전략적 정책 문제(strategic policy issues)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 ▸ 두 기업이 연료 공급업체이자 운송 회사로서 친환경 미래 해양 연료 개발에 필요한 사항 검토와 탄소 시장에서의 연료의 효율성 조사 이행

민간 무선 네트워크를 활용한 항만 디지털화

(출처 : Maritime Executive, '23.9.5.)

- 항만의 디지털화는 세계 무역의 90%가 해상으로 운송되고 2050년까지 해상 교역량이 3배로 증가가 예상되는 현시점에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다음과 같음
  - ▸ ① 항만 운영 최적화를 통한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 ② 인명, 자산, 화물에 대한 항만 보안 개선, ③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과 기계 간의 커뮤니케이션 개선, ④ 연료 소비 감소로 인한 지속가능성 개선
- 항만 디지털화는 높은 수준의 네트워크 연결, 가용성 및 신뢰성이 필요하며, 이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은 민간 무선 네트워크임
  - ▸ LTE 또는 5G는 Wi-Fi에 비해 훨씬 적은 액세스 포인트가 필요하며, 먼 거리에서 작동 가능하고 가시거리에 영향을 받지 않음. 또한, 24시간 작동하여 비상시 보안 및 안전에 필요한 가용성과 안정성을 제공함
- 디지털화를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고 항만 경험이 풍부한 전문 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주파수 및 관리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서비스 공급업체, 항만에 적합한 장비와 네트워크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민간 무선 기술 공급업체, 항만당국, 정부 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이 필요함
- 한편, 민간 무선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항만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항만 디지털화 현황은 다음과 같음
  - ▸ 북해: 연간 5,000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하는 북해 항만은 2019년에 5G 상용 무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예인선, 카메라, 센서 등을 연결하여 효율적인 항만 운영을 하고 있음
  - ▸ 카리브해: 카리브해의 다목적 터미널은 4.9G 상용 무선 네트워크와 컴퓨팅 솔루션을 구축하여 대형 탄화수소 터미널을 자동화함. 이 솔루션으로 최대 20,000대의 차량을 추적하여 터미널운영시스템(TOS)과 운영자 간의 연결이 가능하며, 부두 및 야드의 크레인 간 연결을 통해 운영을 최적화할 수 있음
  - ▸ 북유럽: Bothnia만의 항만은 민간 무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3개 항만과 15개 회사를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적재 정보 접근이 가능함. 이는 부두에 빈 슬롯이 있을 때 선박이 적시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연료 절감에 효과적임